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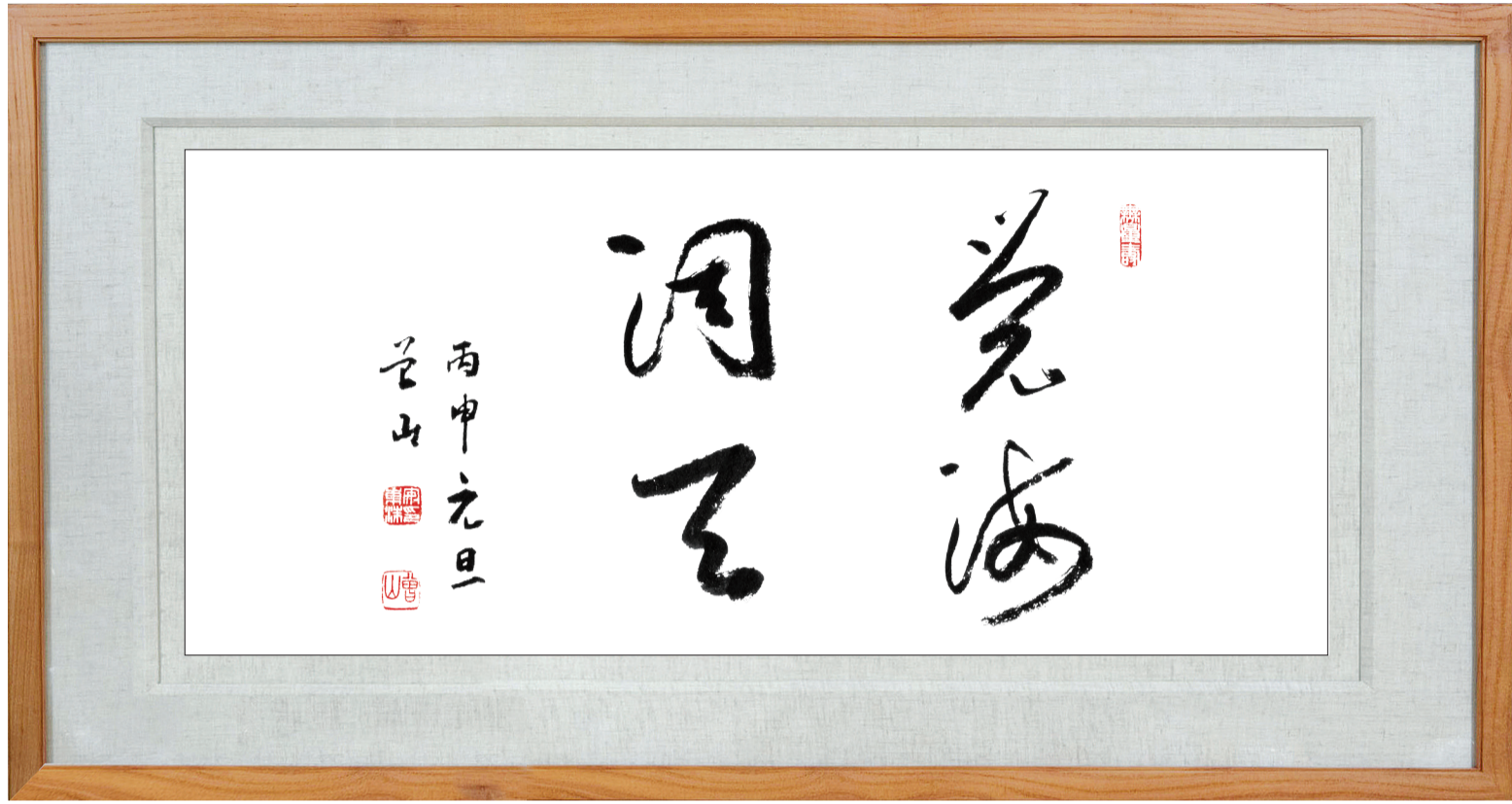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12월 25일 (금요일) [제121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해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覺海洞天 | 깨달음의 세계 하늘길을 연다

각해통천

하늘 길도 열리게 한다는 깨달음의 세계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허허로이 텅 비어 삼라만상이 자생자재하고 六途四生마저도 구애없는 세계입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 자연의 대법칙은 어김없이 乙未年을 보내고 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밝

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할 때입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원숭이는 재주에 능하고 어느 동물보다 가족 사랑이 유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숭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혜와 자비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고 깨달음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모두가 유용하고 훌륭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

니다. 그 가운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있듯이 우리는 가족 사회 국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확고한 불심을 바탕으로 품격을 갖추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인 모두가 칭송하는 청정불국토로 이루어지길 발원합니다.

丙申元旦 金剛禪院長 慧炬

신년 7일 합동 천도재 봉행

2016년 병신년 신년 7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업장소멸과 조상천도를 위한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불자님들 수희 동참하시어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 입 재 : 2016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 ▶ 회 향 : 2016년 3월 02일(수) 오전 10시 30분
- ▶ 동참금 : 20만원
- ▶ 계 좌 : 신한은행 100-025-513955 금강선원



2016년 입춘기도 봉행

오는 2월 4일(목)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입춘기도를 봉행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금강선원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2016년 한해도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살고 안녕하길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헤거 큰스님께서 직접 쓰신 입춘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설날합동차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2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설날합동차례를 지냅니다. 금강선원의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제수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예법과 절차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설날합동차례에 동참하시어 가족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3일기도 봉행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2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신년3일기도를 입재합니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간 과거를 참회하면서 업장을 녹이고 아울러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스스로 다짐하고 발원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전에서 새해의 결심을 발원하고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발원하는 신년3일기도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성도재일 철야정진

▶ 일시 : 2016년 1월 16일(토) 밤 9:30~익일(일) 오전 4:30
▶ 장소 : 대법당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밤 7:30~10:30
▶ 장소 : 대법당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 매주 일요일 오전 10:30

만일수행결사회 대만성지순례

보살사상 실천 만일수행결사회에서는 대만 자제공덕회등을 견학하고 앞으로 금강선원의 봉사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대만 신승 사대종문인 자제공덕회(국제자선봉사단체), 중대선사(참선수행도량), 불광산사(인간불교 실천도량)를 비롯하여 현장스님 사리가 모여진 현장사, 등신불이 모여진 자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십시일반을 통한 대규모 불사, 기복불교가 아닌 인간불교, 철저한 오계의 실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 성지순례는 우리나라 불교의 현재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동안거를 시작하며

11월 26일(목)부터 3개월간의 동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헤거 큰스님께서는 결제법문에서 “자기 안에 있는 제 마음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결제기간 동안에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각자의 단점을 찾고 고칠 수 있도록 용맹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도덕경 특강 개강

지난 11월 27일(금) 1시 30분 탄허기념 박물관에서 헤거 큰스님의 도덕경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모든 주석을 종합하여 마음 닦는 법, 세상 사는 법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이번 특강은 매주 2회(수,금)로 진행되며 내년 1월부터 BBS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수계식

지난 11월 29일(일) 오후 1시 30분 대법당에서 2015년도 하반기 수계식이 있었습니다.

수계식은 전통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되었고 헤거 큰스님께서는 수계자들에게 일일이 불명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계첩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수계자들 모두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제3기 청소년10분집중 명상지도자과정 수료식

12월 12일(토)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제3기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지도자과정(이하 명상지도자과정)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토)부터 시작된 제3기 명상지도자 과정은 총 7개월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400시간 수행과 90% 이상 출석, <좌선의>와 <심우송> <신심명>의 원문 암송 등 모든 일정과 과제를 마친 연수생 28명 중 17명이 자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상지도자과정은 2013년 제1기 명상 지도자 과정을 시작하여, 현재 제3기까지 총 64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상 지도 전문가 육성으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1학년 정규 명상수업 진행,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명상수업이 진행되는 등 각 학교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회 IPC(Inner Peace Community) 총회 개최

12월 12일(토) 오후 2시 심검당에서 제2회 IPC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IPC는 금강선원 산하 ‘청소년 10분 집중 명상지도자 과정’을 수료 또는 이수한 명상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위해 2014년 12월 13일 결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상으로 행복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표를 두고, 명상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수행, 교육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 IPC 주요활동사항 보고, IPC조직 개편 안내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가 있었고, 2016년에는 소모임 결성으로 공부 및 유대감 강화에 노력하며 모든 회원의 팀별 지원활동을 통해 IPC가 명실상부한 명상 전문 지도자 집단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제27기 기초참선반 수료식

12월 16일(수) 오후 7시 대법당에서 제27기 기초참선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시상과 상당인증서 수여에 이어 진행된 수료법문에서 헤거 큰스님께서는 “참선은 오욕을 비우는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동지를 맞이하여

지난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동지법회가 있었습니다.

양의 기운이 싹트는 동지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기도를 시작으로 법회는 시작되었고 헤거 큰스님께서 법문에서, 새해에는 덕을 베풀고 더욱 공부하여 소견을 넓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불자들은 함께 팔죽을 나누고 새해 달력도 받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일수행결사회 대만성지순례



도덕경 특강 개강



하반기 수계식



제3기 청소년 10분집중 명상지도자과정 수료식



제27기 기초참선반 단체사진



동지법회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⑨



근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생명을 담보하고 거침없이 살상을 자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종교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작용하는 순기능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현혹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숲과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은 다름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마시고 신심을 깊이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선원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故로 三觀을 證明하사 眞假俱로 入케 하시고 諸輪을 綺互히 單複圓脩케 하시며
그러므로 삼관을 증명하여 진가가 함께 있고
제륜이 서로 물려있어 단복으로 원만히 닦아야 한다.

고故로 삼관三觀을 證明證明하사 진가眞假俱로 入케 하시고, 그러므로 세 가지 관법으로 맑고 밝게 증명하여 진가구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의 삼관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이

고, 진가구란 천태지의선사가 팔만대장경을 정리하실 때 원각경의 삼관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중 사마타는 탐진치를 멈추어 온 만물우주가 공공임을 깨닫는 공관이고, 가관은 현상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가이고 환이요 거짓임을 아는 것이 삼마발제요, 선나는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가 아니며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아는 중도, 곧 중관입니다. 즉 진眞가假구俱는 공공관 가假관 중中관 말입니다.

제륜諸輪을 기호綺互히 단복원수單複圓脩케 하시며, 여러 가지 수행법을 서로 한 가지나 두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쓰면서 수행하게 하시고, 제륜은 원각경의 삼관 수행법 25가지를 말합니다. 단복원수란 수행을 함에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동시에 하는 방편을 말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러므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세 관법을 맑게 증명하여 공공관 가관, 중관에 들어서 수행법을 한 가지나 또는 여러 가지로 원만히 닦게 하시고,

四相이 潛身이어든 非覺이 違拒며 四病을 出體하사 心華를 發明하시고
사상이 신에 잠겨 있음에 각이 아니면 어긋난 것이요 사병이 몸에 남에 심화가 밝혀지는 것이다.

사상四相이 잠신潛神이어든 비각非覺이 위거違拒며, 사상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몸에 잠겨 있으면 각이 아닌 것이 작용하므로 위반하고 거역한다. 즉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병四病을 출체出體하사 심화心華를 발명發明하시고, 네 가지 병이 몸에서

떠나면 마음 꽃이 밝게 드러난다. 즉 지혜가 흰히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병四病은 참선할 때에 생기는 병으로 작作병 지止병 임任병 멸滅병 네 가지인데, 작병은 자신이 여러 행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병폐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병은 생각이 쉬고 일체 성품이 적연 평등하게 그쳤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병폐이고, 임병은 생사 열반의 모든 것을 법에 맡겨버리면 된다는 병이니 이런 사람은 환 망 무명을 버려야 합니다. 멸병은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몸과 마음에 얻을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병으로, 결국은 모든 허물과 업과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마음에 있으면 각이 아닌 것이 어긋나고 거역하게 하며, 작병 지병 임병 멸병이 몸에서 없어지면 지혜의 꽃이 밝게 드러난다.

復令, 長中下期로 克念攝念하야 而加行하시며 別遍互翳으로 業障惑障이 而消亡하야
대시, 중기장기 하기로 생각을 아끼고 거역 행을 더하고
별편을 두루 익히는 것으로 업장과 혹장을 익혀 소멸해야 한다.

부령復令, 다시 말하면, 장중하기長中下期로 극념섭념克念攝念하야 이가행而加行하시며, 공부하는 기간을 장 중 하기로 정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극복하고 거두어서 더욱 가행하며,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기간을 설정해야 결과를 성취하기가 좋습니다. 참선을 하려고 앉아보면 몸은 조그만 방석위에 있으나 생각은 온 우주 천지를 돌아다니고 과거 미래를 합부로 넘

나들지요. 이런 마음을 조용히 한 곳에 묶어서 가행 정진해야 나를 제대로 보고 공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별편호습別遍互翳으로 업장혹장業障惑障이 이소망而消亡하야, 참선할 때에 개별로 또는 두루 서로 익혀서 업장과 혹장이 소멸되어, 업장은 과거에 잘못해서 얻은 장애이고, 혹장은 현재에서 탐진치의 미혹한 마음으로 생긴 장애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시 말하면 참선공부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극복하고 섭렵해서 가행정진하고, 한 가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서 업장과 혹장을 소멸하고,

成就慧身하야 靜極하고 覺遍하야 百千世界에 佛境이 現前케 하시니,
혜신을 성취하여 고요가 다함에 깨달음이 두루하여
백천세계에 부처님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성취혜신成就慧身하야 정극靜極하고 각편覺遍하야, 지혜의 몸을 이루어 꿈속에서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함이 극치에 이르고 깨달음이 두루하여 어디에도 막힘이 없다.

백천세계百千世界에 불경佛境이 현전現前케 하시니, 백 천세계에 부처님의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시니, 온 세상이 곧 불국토가 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만들어 내는 세상,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정리하면, 공부가 이루어지면 지혜의 몸이 되어 고요함이 지극하여 깨달음이 두루하게 되니 온 세상에 불국토가 드러나게 된다.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불교역경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큰 뜻을 널리 펼치고자 시작되는 성스러운 대방광불화엄경 불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큰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 대방광불화엄경 經 제목 (각 1자) : 1천만원
- ❖ 글자 100자 (10구좌) : 1천만원
- ❖ 글자 10자 (1구좌) : 108만원

- ❖ 동참계좌 : 신한은행 100-029-930686 금강선원
- ❖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445-8484)

呑虚大宗師遺墨選



410×90×130mmcm | 탄허기념박물관 소장

通玄峰頂不是人間
통현봉정불시인간

통현봉 정상의 경지는 인간세계가 아니다

아상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박물관 단상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자살폭탄과 총기를 이용한 동시다발적 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를 자행한 IS(Islam State)는 정부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을 표적으로 삼아 공연장, 축구경기장, 식당, 카페 등에서 테러를 저질렀다. 이날 발생한 테러로 약 132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러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다. 지하철에서는 부루카를 쓰고 눈만 내놓은 여성들만 보아도 그녀들의 옷 속에 혹시 폭탄이 있거나 없을까 하는 염려로 옆 칸으로 건너간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IS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과는 다르다. IS

의 근간을 이루는 '와하비즘(wahhabism)'은 18세기 오스만 트루크 시절 와하브(1703~1792)에 의해 생겨났으며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초기 경전의 코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란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이를 믿지 않는 '배교자(背敎者)'에 대해서는 무참히 제거하도록 했다.

중세에는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신이었다. 마틴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해석의 독점을 무너뜨렸고, 이때부터 시작된 구교과 신교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은 마치 현대의 IS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 같았다.

종교개혁으로 신에서 내려와 인본주의가 등장하였다. 미술사

및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랍권에서는 휴머니즘이 종교 밖으로 나와 종교 전체를 견제할 수준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나혼자만이 경전을 해석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나의 해석만이 옳은 해석이라고 믿는 것은 IS만이 아니다. 중세의 기독교, 근대 정치이념, 개인도 IS 못지않은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원숭이의 해이다. 원숭이는 재주가 넘치는 동물 중 하나이며 사람과 가장 닮아 있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새해에는 살아오면서 가졌던 아상(我相)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글 / 최미금 학예사

제8기 박물관 문화시민 대학생 봉사단 모집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8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기간은 2016년 1월~2월이며, 신청자는 대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50시간이상의 봉사시간을 이수하시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또한 중식을 제공하며 박물관·미술관 관련 탐방도 계획중입니다.

지원은 (www.museum.or.kr)로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율현초등학교 단체 관람



12월 2일 율현초등학교 학생 17명이 학교내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수업으로 박물관을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박물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학예사와 교육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들었습니다. 본 박물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보광명전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학예사와 교육사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꿈을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자원 봉사 DOVOL

12월 19일 도곡중학교의 김나연, 정혜원 학생이 전시 안내 및 미화봉사를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의 케이스의 유리를 정리하고, 박물관 주변의 환경정리를 성실하게 3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박물관 소식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 12월 02일 : 율현초등학교 단체관람
- 12월 03일 : 박물관 봉사자 회식
- 12월 04일 : 근현대사 박물관 워크숍
- 12월 05일 : 사립박물관 협회 교육인력지원 워크숍
- 12월 18일 : 청소년 봉사활동 두볼 지도자 교육
- 12월 31일 : 금강선원 송년법회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書心칼럼 푸르른 마음으로



겨울의 시작 530 x 450mm

얼마 전 농산물 시장에서 크고 먹음직스러운 대봉을 두 박스나 샀습니다. 작년에도 대봉을 잘 익혀 냉동실에 넣어 두고 초여름까지 하나씩 꺼내먹은 달콤함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집에서 익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감 말릴 그릇 준비부터 베란다 한 귀퉁이 청소하는 일까지 괜히 샀나 싶었습니다. 목직함 감들 하나하나 소쿠리 밑이 빠질 정도로 담고 나머지는 신문에 널고 나니 부자 된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집안에 대나무로 만들어진 돗자리, 방석, 소쿠리 등등 몇 가지는 사용할 때마다 정이 더욱 가곤합니다. 특히나 소쿠리는 계절에 관계없이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그 낭창낭창한 부드러움과 따스한 질감은 어릴 적 향수까지 베어 나오게 합니다.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五友歌)'에서 대나무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죽(竹)은 우리가 대나무라 부르지만 꽃을 피우고

나면 죽는 풀의 일종입니다. 개화기가 일정하지 않아 수십 년 걸게는 100여년 만에 꽃을 피우는데 줄기가 거의 시들어 갈 무렵 꽃을 피우고 나서 그 일대가 한꺼번에 죽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군자인 매·란·국·죽(梅·蘭·菊·竹)에서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합니다. 엄동설한에도 그 잎은 떨어지지 않으며 한 여름 폭염에 아스팔트가 늘어져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한겨울 눈에 어우러진 설죽(雪竹)은 그 차가운 기운이 가슴을 파고들고, 한 여름 바람에 흔들리는 풍죽(風竹)은 온몸의 땀을 거두어 갑니다. 이렇듯 사시사철 변함없는 푸르름과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기상은 곧 바른 선비의 기개와 같다하여 군자는 그를 본받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로고인 대나무나 군의 영관급 계급장이 대나무 잎 문양으로 되어있는 것은 항상 굳건한 기상으로 정의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수묵화는 당(唐)의 吳道子(680~759)

부터 시작되고 묵죽(墨竹) 역시 그에 의해 가장 먼저 그려졌습니다. 이후 오대와 북송(北宋)년간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에 지조 있는 선비들이 산간에 숨어들어 화재(畫材)로서 죽(竹)을 택하여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북송시대 文同(1018~1079)을 중심으로 한 호주죽파(湖州竹派)의 출현으로 묵죽법이 성립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원대에는 더더욱 성하였는데 몽골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은둔생활을 하는 문인들이 그들의 억눌린 가슴을 대나무로 많이 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1075~1151)이 최초로 대나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많은 화가들이 묵죽을 그렸는데 조선시대는 그 전성기로 이정(李暹), 유덕장(柳德章), 신위(申緯)가 이를 이끈 3대 묵죽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따를 자가 없다」는 '이정'의 묵죽은 그의 삼청첩(三淸帖)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만원권 지폐에서도 볼 수 있는 풍죽도(風竹圖)에서 바람을 타는 잎과 버티는 줄기의 절묘한 조화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별써 한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보도에 자꾸 어깨가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 일수록 찬바람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는 대나무의 꽃꽂한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을 살아 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이 사회 구석구석 따뜻한 등불이 되어 온기를 전하는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글, 그림 / 담현 김외자 (문인화가)

2016년 달력



1월 원각경 계송 중 제1 문수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달력에는 헤게 큰 스님께서 직접 쓰신 원각경 계송을 담았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12월 31일이 1월 1일로 바뀌고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고 설레며 특별합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다가 올 새로운 1년을 위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희망과 염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조금씩 솟아납니다. 그 마음이 힘이 되어 우리를 다잡고 몸을 일으켜 세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렇듯 매년 맞이하는 새해인데도 늘 새롭습니다. 매년 제작하는 금강선월 달력도 늘 원각경 계송을 담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원각경을 담고 있지만 늘 새롭습니다. 그 안에는 헤게 큰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 큰스님께서는 매년 새로운 원을 담아 원각경 계송을 쓰십니다. 불자들을 위해 가정과 나라를 위해 원각경 한 글자마다 스님의 원력을 담아 한 해를 열어줍니다.

2016년 1년 내내 12장으로 이루어진 원각경 계송으로 다가오는 새해 열두 달 동안 모든 불자들의 마음에 부처님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글 / 편집부



고전멘토 - 나를 성장시키는 열 권의 고전 -

데미안, 어린 왕자, 햄릿,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 고전 속 주인공이 들려주는 불안, 기쁨, 슬픔, 성장, 환희의 이야기

“고전 멘토들은 이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보며 더욱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에 감염되어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잘 것 없는 조각배를 타고 저 운명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결국 파멸해가는 뒷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슬픔과 고통 위에서 피어나는 존엄한 인간을 끝내는 마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 이고 '너' 이며, 마침내 '우리' 인 것입니다.” - 책의 서문 중에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로 인해 늘 불안하고 고독한 청소년들에게 고전 속 열 명의 멘토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가 담긴 책, 『고전멘토』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정, 한수영 지음 | 김정진 그림 | 꿈결 퍼냄

기초참선반을 수료하며

저는 43살 직장인입니다. 작년 4월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고 초심자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불자였기도 합니다만 위암말기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가 무교였던 저를 불교로 돌리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은 먼지로 꽂찬 좁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고, 왜 이렇게 삶이 괴로운가에 대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2011년 아버지의 갑작스런 별세는 내 삶을 완전히 어두운 장막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인터넷으로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어렵듯이 어떤 해답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제일 먼저 반야심경부터 공부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가르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쾌한 해답'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읽어 보았습니다. 반야심경보다 좀 난해했지만 나침반처럼 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불교에 관한 서적도 찾아보고 불교방송도 보면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 지금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혜거 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난해한 금강경은 쉽고 차분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혜거 큰스님의 불교교리 강좌나 금강경 강의를 더 듣고 싶어 금강선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금강선원을 찾아간 날 기초교리반에 관해 상담하던 중 혜거 큰스님을 직접 친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큰스님은 저의 직업을 물으시더니 창작에 관한 직업에는 참선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스님의 말씀에 따라 기초참선 과정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참선반의 교육과정은 참선자세와 기초수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날은 30분 좌선.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리와 골반의 통증으로 온 정신은 흐트러지고 30분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참선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50분 동안 앉아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른 도반들이 깨끗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 위로를 하며 순간순간 버텼습니다. 매일 그날 참선후기를 적고 나날이 참선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나 눈을 감지 말고 코끝에 시선을 두고 마음자리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라는 답변을 달아주신 큰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초참선반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마음에 일어난 먼지는 참선을 통해 가라앉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과는 다른 것이며 명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기초참선교육을 마친 제가 현재 바뀐 것이 있다면 10년에 절반 정도는 화를 내거나 짜증날 때 이유를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선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선수행을 통해서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초참선에 참여하셨던 27기 모든 도반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혜거 큰스님과 수행시간에 항상 앞에서 이끌어주신 보유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효원 송민수(제27기 기초참선반)

청소년 10분 집중 명상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며

살다보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문득 가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르다 보면 그게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기 청소년 명상지도자과정을 지원한 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이들면서 애써 회피해 온 제 인생관, 가치관을 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똑바로 직시하게 되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어렵게나마 그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불과 팔 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것은 혜거 큰스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지도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도움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봄 면접 때 처음 뵈는 스님의 형형한 눈빛과 거인처럼 아주 큰 모습에 압도되는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스님의 법문과 수행 면담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막 살아왔으며 무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력이 지혜다' 라는 스님의 명쾌한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게으르지 않고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삼매와 선정이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득하게 높고 먼 경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진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깨워 주신 큰스님의 가르침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육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정립부터 뇌과학 등 첨단지식에 이르기까지, 교육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도록 일깨워주신 광명장 선생님의 가르침과 노고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해박하고 깊이 있는 강의 내용도 경탄스럽지만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바른 소리하기 꺼려하는 요즘 세태에서, 스승으로서 진정한 사표가

될 만한 자세를 한결같이 보여주신 선생님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내내 교육을 받느라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문수월 선생님의 넉넉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은 저희 교육생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장해제하도록 하는 힘을 지니신 문수월 선생님의 내공을 저도 꼭 가지고 싶습니다. 지난 팔 개월 동안 저희들을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과정에 꼭 필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을 꼼꼼히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박정문 선생님과 정정순 선생님의 노고와 헌신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집을 빠져나와서 400시간 이상을 수행하느라 종적을 감추더라도 흔쾌히 이해해주고 성원해준 가족들, 은사스님, 도반스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도움과 배려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육생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마주치든 혜거 큰스님의 제자답게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슬기롭게 잘 적용하여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부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글 / 김형근(제3기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지도자 과정)



제3기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지도자 과정 수료자 단체사진 중에서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중-66396호

강남역 사거리 2 아이리움안과 의원
강남센터빌딩 7층
강남역 2번 출구 지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 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 의원

아이리움안과 의원 과 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수행결사회 대만 성지 순례

송미령이 대만을 위해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던 시절, 대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승진과 출세는 꿈꿀 수 없었다. 대만 총통 장개석의 퍼스트레이디였던 송미령은 기독교 신자였다. 대만인에게 절에 가면 미라가 어렵다. 절은 노인만 다니고 죽은 사람의 명복만을 빌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51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로 말만의 선종, 대처승 등 불교의 잔재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즈음의 대만 백선스님의 10계는 서릿발처럼 지엄했다. 대처는 승려가 아니다. 순수 채식자가 아닌 자도 승려가 아니다. 승복을 입지 않은 자도 승려가 아니다. 중국 불교회에 미등록 된 승려와 사찰도... 그런 백선스님에게 스님과 재가불자는 하나다. 라는 평등사상을 내세워 미움을 자초한 초 왕따 제자가 있었으니 성운스님이였다. 스님은 문맹집안 출신이었다.

지금 대만은 그가 세운 불광사를 따라가지 않는 절이 없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쫓겨 온 대만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스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가슴 안 아프게 어루만지면서 정곡을 찌른다. 템플스테이, 재가불자의 단기 출가에서는 물을 가르치기 위해 발우 공양을 공개한다. 그에겐 선방도 스님들의 고유한 장소일 수 없다. 승가 자체의 힘으로 주차료, 입장료를 일체 받지 않는다. 4D 영화까지 다 공짜다. 전기, 인건비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기적을 이룬 불광사는 중생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찾아가는 불교, 고층을 들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우울이나 자살이 아닌 웃으며 죽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죽어서 서방정토를 가는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의 관세음보살. 너는 나의 아미타불이다.

대만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하다. 그런데도 실천불교도량 불광사, 참선수행제일의 중태선사, 자선사업제일인 자제정사도 모두 웅장했다. 그들의 대륙적 사고를 집착하며 타임지 2회 연속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한 자제정사 법당에 들어섰다. 1967년 이후 북한으로 가장 많은 쌀을 보내는 절. 비정부 조직에 등록된 자제정사의 철저한 무주상 보시에 감복했는지, 북한은 법당의 일신삼체불 위에 3백 개의 타일을 붙였다고 한다. 거룩하고 장엄한 일신삼체불이 주는 감동의 의미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자제정사를 세운 증엄스님은, 모든 가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병에서 왔다는 결론에 이른다. 스님은 무료의료사업을 시작으로 자선 사업, 교육사업, 인문사업, 방송사업, TV방송국 등으로 넓혀갔다. 연속극의 내용은 힘이 생기는,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지족과 자신감을 준다. 상식은 지혜를 보태어야 하고, 뉴스도 호뉴스. 뉴스의 자막 앞에는 호, 라는 접두사를 붙여 방영했다. 스님이 가는 자선의 길은 매일 5전씩 저금하는 십시일반이어야 했다. 한 번의 큰 보시

보다 한 달 서른 번의 작은 보시가 더 낫다. 남을 돕는다면 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실업가가 제안한 대만 돈 6억마저 마다했다. 스님은 한계에 부딪칠 때면 빗속에서도 3보 1배, 관세음보살기도로 극복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탈 기독교화해서 불교 국가를 이룬 대만의 기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스님과 재가불자가 함께 밤을 새워 참선 수행을 한 아침의 공양을 위해, 밤새워 밥을 지은 봉사자들의 손길에 담겨 있었던 것일까?

2015년 11월 24일에서 28일까지 4박 5일 동안의 대만 성지순례는 불미스러움 없이, 멀미도 없이 참으로 건강하고 화목했다. 동료를 배려하는 금강선원보살들의 아상을 벗어버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불국토의 꿈은 이미 보살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불꽃을 일구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글 / 선각화(만일수행결사회)



대만 자제공덕회

자제공덕회의 설립자는 대만출신의 비구니스님인 증엄스님으로 1966년 화련지방에서 5명의 출가제자와 30명의 가정주부가 매일 대나무저금통에 5전을 저축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이 그 시초다.

증엄스님의 중생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된 초기의 빈민구제활동은 1972년 무료빈민진료시설을 시작으로 86년 자제종합병원 개원(현재 6개의 종합병원 운영), 89년 자제간호학교, 자제의학원 개설, 91년 해외자선사업, 93년 골수기증단체, 98년 대애방송국(광고없음) 설립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기준 50개국에 502개의 지부를 두고 전세계 1000만명의 회원을 둔 대규모 국제자선단체로 성장하였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고통과 재난을 구해주시듯이 만약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가진 500명이 각처에 흩어져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중생의 아픔을 구제한다면 이는 관세음보살님을 중생의 모습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증엄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제공덕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제위원들은 기부금 모금, 빈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초기의 단순한 역할에서 자원봉사, 환경보호, 국제구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임무에 적극 대처하며 자제공덕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67,000명, 33개국 10,000명의 위원들이 활동중이다.

글 / 명정관(만일수행결사회 간사)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금 | 천화당한의원 김복자 참선반 경기63선우회 최혜영 무주상 명상지도자과정3기 고종식 만수결도해팀 유인자

보시물 | 양월약국 동명한의원 이재형 청심 무주상 박정숙 정선승 김윤곤 배창국 맹지혜 정성휘 박선숙

대중공양 | 김신양 박인숙 한우림 손혜진 무주상 김중기 최선철 김예슬

신문보시금 | 황법왕심 김용순 김종영

달력보시금 | 진여심 박병의 정각월 무주상 성도화 김용순 김중수 정영애 이주연 임태순 능지행 관요행 최승호 백종민 이옥재 자재회 불교대34기 불교대35기 김길호 각화심 김종영

정명심 최옥부 보리성 압구정선등 서옥순 최혜영 정금옥 의락성 오명숙 이재석 개포선등 남정희 윤중애 무주상

수륙대제 대중공양 | 김승환 정경희 불교대33기 양승제 김성태 이기영 관요행 무주상 하경식 김중원 김홍원 최봉선 무주상 대법화 의전반 김미영 무주상 이미선 이재준 대덕행 이길우

하영금 최정한 장기신 서예반 최유정 자심문 정순자 정해성 청정심 정동희 송소이 상명심 김정애 진화성 김진열 이정숙 원음회 정인행 선요행 무주상

김학봉 김홍은 무등행 선각화 명성화

동지 대중공양 | 본각행 김종영 김철관 무주상 대치선등 불교대33기 정윤형 무주상 오춘근 혜강월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화	업	경	설	판
김		재		연
김		순		이
무		주		상
정		진		만
최		선		영
구	좌	동	참	
1	- 1 1 0 9	맹	자	
1	- 1 1 1 0	맹	자	
1	- 1 1 2 1	박	철	

1	- 1 1 2 2	엄	신	용
1	- 1 1 3 3	최	봉	선
1	- 1 1 3 4	권	규	아
1	- 1 1 3 5	이	준	혁
1	- 1 1 3 6	김	가	지
1	- 1 1 3 7	류	지	진
1	- 1 1 5 8	백	진	석
1	- 1 1 5 9	안	승	태
1	- 1 1 1 8	장	재	기
1	- 1 1 8 2	장	광	호
1	- 1 2 5 7	조	영	훈

1	- 1 1 8 3	박	대	혁
1	- 1 1 8 4	수	수	진
1	- 1 1 8 7	혜	혜	연
1	- 1 1 8 6	이	정	섭
1	- 1 1 8 5	조	수	빈
1	- 1 1 8 8	배	정	주
1	- 1 0 0 2	양	창	금
1	- 1 1 8 9	배	찰	국
1	- 1 1 9 0	김	일	환
1	- 1 1 9 1	김	일	화
1	- 1 1 9 2	이	유	우

1	- 1 1 9 3	김	승	국
1	- 1 1 9 4	송	명	자
1	- 1 1 9 5	권	순	석
1	- 1 1 9 6	조	민	자
1	- 1 1 9 7	조	진	연
1	- 1 1 9 8	관	요	행
1	- 1 1 9 9	임	승	빈
1	- 1 1 6 0		공	동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한비자 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성인기초참선 매주(수) 오후 19시 0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청년 10년 집중행자과정 5월2일~12월 12일(토)오후2시

문화특강 안내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한문반(도덕경 특강) 매주(수,금) 오후 1시 30분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2016. 1. 19. 명상지도자협회 회의참석

선원 일정 (1.1~1.31)

01. 01(금) 신정연휴(1일~3일)
 04(월) 21일 기도입재 9:20
 06(수)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08(금)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09(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10(일) 초하루기도 9:20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13(수)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15(금)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16(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17(일) 성도재일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20(수)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22(금)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23(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금강경독송집중정진 19:30
 24(일) 21일 기도회향 9:20
 보름기도 9:20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27(수) 지장재일 9:20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29(금)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예정) 13:30
 30(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31(일)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헤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야마천궁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헤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15장
 ☎ 문의 : 교무팀 02-445-8484
 ☎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일요일 점심공양봉사에 동참해주세요

평일 봉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요일 봉사에 참여해보십시오. 봉사는 수행입니다.
 문의 : 사무실 02-445-8484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헤거 큰스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수행생활 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선원 기도 동참 안내

기 도 명	기 도 기 간 및 시 간	동 차 금
사시기도	매일 오전 9시 20분	
일년기도	매일 오전 9시 20분	2만원 / 매월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력) / 오전 9시 20분	1만원
보름기도	매월 보름(음력) / 오전 9시 20분	1만원
지장재일기도	매월 18일(음력) / 오전 9시 20분	1만원
소원성취 21일 기도	매월 1~21일 / 오전 9시 20분	5만원
생일기도 및 각종 축원	오전 9시 20분	3만원
대학수능100일 기도	100일기도 / 오전 5시, 9시 20분	10만원
입춘기도 / 동지기도	입춘, 동지/ 오전 10시 30분	각 3만원
신년3일기도	매년 1월 3일~5일(음력) / 오전 10시 30분	3만원
신년천도재	매년 1월 18일(음력) 오전 10시 30분	20만원
설날 / 추석합동차례 동참금		각 20만원
인등기도		1인5000원 / 매월